

# Ἡ Ἰστορία τῆς Συνθήκης τῶν Ἀβραάμ καὶ τῶν Βασιλέων τῆς Συρίας καὶ τῆς Ἀραβίας καὶ τῆς Συρίας καὶ τῆς Ἀραβίας

© 2024 케네스 매튜스 및 테드 힐데브란트

12과에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식과 언약의 표징에 대해 다룬다.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행에 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4장에서는 두 그룹의 왕들, 즉 동방 왕들의 집단과 그 다음에는 서방 왕들의 연합 사이에 벌어진 전쟁을 묘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돔 왕. 동방의 왕들은 서로를 쳐부수고 백성을 포함한 그들의 소유물을 보상으로 빼앗아 북쪽으로 진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가족이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알고 군대를 모아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고,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두 명의 왕을 만났는데, 이를 두 왕의 이야기라고도 합니다. 그에게 연설한 첫 번째 왕은 아마도 예루살렘이었던 살렘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멜기세덱입니다. 저는 멜기세덱과 그가 아브라함을 만나러 도시에서 나왔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비유를 다루면서 그와 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유사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왕은 소돔 왕인데, 이 두 왕의 대조는 더 이상 극명할 수 없습니다.

소돔 왕의 경우, 그는 자신의 소유물 중 일부를 반환하기로 협상했으며, 그런 다음 아브라함이 일부를 자신이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하게 하였다고 자랑할까 두려워서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자기의 모든 재산과 모든 재산을 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만드셨습니다. 이제 멜기세덱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비유를 해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우리에게는 평범하지 않지만 1세기에는 매우 받아들여지고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할 일은 모형-대형, 즉 멜기세덱이 모형인 비유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지점에서 비유일 필요는 없으며, 멜기세덱을 해석하기로 선택한 저자와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 있는지에 의해 선택된 비유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의 문맥에서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반차, 즉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는 다른 제사장 혈통의 반차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레위 지파이며 특히 그 뒤를 잇는 족보의 대제사장인 아론의 집안입니다. 그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매일 아침, 저녁마다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에서 논의되는 연례 속죄일은 이 제사장이 드리는 희생이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일시적인 해결을 제공했지만, 사람들의 죄에 대한 최종적인 완전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하며 아론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의 경우와 같이 죽음에 제한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대 전통으로 돌아가려는 억압 때문에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열어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끌어낸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인물 멜기세덱(1절)은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었으며 앞서 말했듯이 아마도 예루살렘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엘 엘리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18절에 나오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22절에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의 언어를 사용하여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에게 흔히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14장에서 그가 천지의 창조주라고 말할 때, 그는 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는 다신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22절에서 엘 엘리온과 야훼를 연결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히브리서 7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므로 그는 왕이자 제사장이다.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 아론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인물인 다윗, 다윗 왕의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왕이 될 자격이 없고, 왕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왕인 멜기세덱은 두 직분을 모두 멜기세덱 한 사람에게서 찾았습니다.

왕이 왕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도 했다는 것은 고대 가나안 세계와 인근 이웃 세계에서는 특이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히브리서 기자의 논증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갖고 있는 것은 제사장이자 왕이기도 하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다윗 왕의 혈통 으로 인해 왕이 되고

, 멜기세덱의 제사장 반차를 따르므로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는 다윗왕이나 대제사장인 아론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충분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합니다. 계속해서 7장 1절에 보면, 그 곧 멜기세덱이 열왕을 꺾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주었다.

그러므로 승인의 행위가 있었고 아브라함의 반응은 멜기세덱이 주 하나님의 동료 예배자임을 상호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성격을 묘사할 기회를 잡으려고 합니다. 첫째,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말을 보면 그 이름의 마지막인 세덱(Zedek)은 히브리어로 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왕은 멜렉이 될 것이고, 나 멜키는 단순히 연결일 뿐입니다. 혹은 나의 의의 왕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의의 왕은 멜기세덱을 두 왕으로 묘사 하지만 경건하고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왕입니다. 그 다음에는 살렘 왕도 있었습니다. 살렘은 평화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살롬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오직 그의 이름만으로 멜기세덱을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묘사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가 예수님을 그런 순서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의로우셨고 또한 하나님의 왕국을 통해 평화를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서 요점은 앞서 설명한 대로 멜기세덱이 그 이전의 족보도 없고 그 이후의 계승자도 없이 갑자기 이 이야기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에게는 부모도 자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 생각엔 그가 신이어야 한다는 것이 요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음을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제사장직은 마치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므로 영원한 제사장직입니다. 때때로 비유가 철저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해석자의 입장에서 선택적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신국제역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가 비유를 그리고 있으며 그 비유는 멜기세덱의 경험과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이 점을 지적하는 이유

는 멜기세덱이 복음서에 나오는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일부 사람들이 믿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구약성서의 다른 구절을 통해 우리가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보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이 실제로 성육신하기 전의 현현 인지, 아니면 그가 인간, 즉 전적으로 인간이면서도 이러한 특정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어떤 방식으로든 모델로 삼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점은 요점이 만들어졌습니다. 4절, 그가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해 보세요.

족장 아브라함도 그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요점은 독자들, 유대인 독자들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은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는 행위로 멜기세덱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자격, 그리고 그분의 희생으로 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는 또한 희생제물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몸으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희생은 하나님의 아들로써 전적으로 충분하며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가 인간의 자리를 대신하실 수 있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를 오래오래 약속된 구원자이신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새 생명을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원자가 노아에게서 발견되었고, 그 다음에는 구원자가 올 수단이 될 아브라함 자신이 있었고, 신약에 관해서 우리는 이에 대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맥락에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다고 선언하고 의롭다고 선언하실 것을 예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즉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써 의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를 맡겨 의롭다 함을 얻으니 이것이 심히 놀랍도다 성경이 미리 내다보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것이 12장 3절을 생각나게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을 내리실 계획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소우주에서 미리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안에 모든 민족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특히 이 좋은 소식, 이 선포와 구원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모든 자들아. 그리고 또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순종하여 갔으니 믿음으로 그가 타국에 있는 나그네와 같이 약속의 땅에 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함께 유업으로 받은 그 후손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기초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의 설계자와 건축자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대조를 봅니다. 창세기에 묘사된 대로 그가 그 땅에 있을 때에는 장막에 살았으나 기초가 있고 흔들리지 않고 기초가 있고 영속하는 성이 있을 날을 사모하였느니라 그는 이 일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말했듯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은 이 모든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 기업을 영구적으로 소유하게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과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유산을 받기 위해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15장, 16장,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에 주의를 돌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15장에 이르면 12장에서 선포된 언약이 덕으로 비준되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언약의 표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 사이에 16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잠재적인 경쟁자인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사라의 여종인 하갈이라는 이름의 애굽 여인이 소개됩니다. 그러므로 15장, 16장, 17장의 마련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유업의 약속을 받는 사랑하는 아들이 될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시는 기회를 16장에도 두는 것이 매우 의도적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분입니다.

이제 15장에 나오는 언약의 예식을 살펴보면 여기서 구조의 중요한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이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였고 또 이상과 함께 여호와와 말씀이 이상으로 임하셨으나 또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며 해석하여 아브라함에게 장차 일어날 일의 뜻을 깨닫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언약식을 할 때 장소. 따라서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 됩니다.

이와 평행을 이루는 것은 7절부터 이 장의 끝 부분인 21절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후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6절은 경첩절이다.

이것은 신약성서에서 인용되고 신약성서 해석자들이 복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7절부터 21절까지는 땅 약속에 관한 것이므로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 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암시되어 있으며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나라의 약속, 자손의 약속이 있고, 땅 곧 가나안을 얻을 약속이 있고,

세 번째 약속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제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것이 두 왕의 사건 직후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을 수 있었던 부를 거절하고 그의 명성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결정이 옳았으며, 여호와이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신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는 당신의 방패입니다.

보세요, 방패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나는 너의 보호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주 큰 보상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타협적인 보상을 제안했지만, 주님께 관해서는 그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차 아브라함에게 대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음, 자손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긴장감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큰 장애물에 직면하게 됩니다. 15장 1절 사이에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매우 중요한 말장난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너의 방패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패라는 단어는 14장에서 발생한 단어에 대한 말장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멜기세덱의 축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희는 그 말씀에 밀줄을 긋고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기서 생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원수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조카 롯을 사로잡은 자들과 동방 왕들의 연맹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적개심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여기서는 소돔 왕으로 명명된 이 왕들의 이웃입니다. 그러나 요점은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방패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주권자이신 아브라함이 제안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엘 샤다이입니다. 엘 샤다이, 주권자이신 주님, 주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내 땅을 상속받을 사람은 다메섹 엘르아살이오? 아브람이 이르되 당신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안의 종이 내 상속자가 되리이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제안한 것인데, 그 당시에는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메소포타미아의 뉴스 사이트에서 알고 있으며 그곳의 종족에는 Hurrians로 알려진 종족이 있었고 Hurrians는 이러한 관습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마도 고대 근동의 다른 곳에서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하인을 입양하는 것이 자녀가 없는 부부를 대신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엘아자르가 다메섹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히브리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상속자가 될 아브람의 제안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보면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좁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자신의 몸에서 나와야 합니다.

입양 가능성은 없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전에 약속한 대로 네 후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약속한다. 13장 앞부분에서 그분은 그의 후손이 티끌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의 매우 중요한 구절, 즉 성경 전체에 이르렀습니다. 서술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해석하고 이것을 6절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이 말이 나오자 아브라함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장에는 약속의 선포가 있고, 다음에는 새롭게 하심, 즉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며, 다시 약속의 확신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여호와와의 말씀을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은 주님을 언급하고 있으며, 주님이 모두 대문자로 되어 있음을 주목하세요. 이것은 히브리어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인 야훼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위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시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환상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가치를 주시고 이 신앙고백의 가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나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르와 하란을 떠날 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은 후 즉시 응답하셨다고 1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여기저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이미 믿음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지만, 해설자인 해설자가 직접 명시함으로써 이제는 그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신용을 얻었다는 단어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어근이 아니라 동일한 의미론적 범위의 계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하시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의미에서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약속을 세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언급한 이유는 공로를 인정받는 단어가 계산의 영역인 동일한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단어이지만 별을 세는 것과 관련이 있기 전의 구절에서 앞서 발견한 내용 때문에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네 자손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그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6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말하는 방식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맺은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이것을 사용하는 신약 성경의 저자는 로마서 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의 두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이 책은 그의 독자들에게 설명하는데, 그 중 다수는 유대인 독자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로마 교회의 이방인 독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구원은 모세가 제시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 모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시하신 율법인 십계명에 초점을 맞추어 만큼 이스라엘 역사로 충분히 거슬러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바울이 설명했듯이 히브리 민족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은 조상,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15장, 6장을 인용했고, 그 내용은 로마서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물론 성경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이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의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며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9절의 해석을 들어 보십시오. 이 복이 할레자에게만 주는 것이냐,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로 할레를 받은 유대인에게만 주는 것이냐, 아니면 무할레자에게도냐? 우리는 그것이 이방인,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의 주장의 요점은 구원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순종해야 할 모세의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의를 인정받았다면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할레를 받기 전에 일어났다는 점도 주목하십시오. 할레에 대해서는 창세기 17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자 곧 그의 자손 곧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가족으로 태어난 자들과 현재 그에게 있는 유일한 자손이 다 있느니라 16장 이스마엘과 모든 이방인이니라 즉, 그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지만 그의 초기 가족 집단의 일원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할레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것은 할레가 베풀어지기 전에 이미 의롭다고 선언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믿음을 바탕으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에게 상을 주시며 그가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15장 이전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주님께 죄를 짓고

그의 영적 여정에서 넘어졌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의 믿음으로 인해 주님은 그를 의로운 신분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자의 비유에 비유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 관련된 것과 동일한 수단입니다. 기독교 신자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나 신뢰라는 말을 좋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공급하심에 관해 선언하신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이 동일하다는 것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아브라함의 목적과 같듯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는가? 주님, 여기서 하나님의 정체성은 야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의탁할 때 우리 자신을 주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동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물론 십자가에서의 희생은 시간 안에서 일어났지만 또한 영원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아브라함이 의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한 것과 동일한 근거입니다.

영원토록 선포된 예수님의 희생의 성격에 관해 가장 분명한 구절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의 대적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믿는 가족 곧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니라. 이제 여기에 관련된 구절인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문맥상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구약의 비유든 신약의 비유든 모든 구원의 기초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듯이 우월성, 만족스러운 것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음, 우리도 같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목적, 즉 주 하나님을 갖고 있으며, 동일한 기초, 즉 예수의 희생은 옛 것이든 새 것이든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예견되고, 예견되고,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두 가지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들도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듭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로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할례보다 먼저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설명된 의식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희생이 수반되는 고대 근동

지역의 의식과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가장 가까운 설명은 예레미야서 3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절을 통해 이어집니다. 여기의 문맥은 그리스도 이전 600년대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8절을 들어보세요.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앞에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를 내가 둘로 나누고 그 사이로 다니는 송아지 같이 하리라.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물을 가져다가 반으로 자르고, 양과 양 사이에 차선과 통로가 있도록 반대편에 배열하라고 지시하시는 일이 정확히 일어납니다. 이 동물의 신체 부위, 예레미야 34장 19절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궁정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송아지 쪼개진 틈 사이로 걷는다.

자,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동물을 가짐으로써 제공되는 통로나 차선에서 반쪽 조각을 통과하는 언약의 두 당사자의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평행하게 횡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두 당사자 사이의 언약에 명시되었을 언약 규정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송아지 쪼개진 틈 사이를 걷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15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다른 점은 동물 조각 사이를 걷는 파티가 단 한 명뿐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우리는 어둠이 임하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잠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조각들 사이를 걷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여기 옆에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인 하와에 의해 그의 옆구리에서 빼앗겼을 때 묘사된 것과 같은 종류의 잠입니다. 그래서 깊은 잠 속에서 그는 밤의 시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구원받기 전에 4세기 동안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므로 그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세가 한 것이며 17절에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을 때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콘센트입니다. 향이 있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 타오르는 횃불이 달린 이 냄비에서 연기가 나오고, 그것이 나타나서 조각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제 맥락을 보면 매우 명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자신이니라 그 날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르시되 그 땅에 나타나는 족속 곧 이 여러 족속의 목록을 주셨느니라

이제 예레미야서 20절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죽이려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 주겠다. 그들의 시체는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이는 암시적일 수도 있고 단지 제안일 뿐이며 다소 추측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예레미야서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데, 언약을 어긴 이들의 원수들은 전쟁으로 처형될 것이며 그들의 시체는 음식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물의 부분을 갖는다는 것은 만약 당신이 언약 조약 관계에서 당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똑같은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상징적인 몸짓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과 같은 운명, 즉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식입니다.

그러면 이 의식은 자기비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 시대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를 어기면 사망의 저주가 내포된 이 언약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로로 대표되는 주님은 통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통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약속을 이행할 참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명성이 언약의 약속을 진실하게 수행하는데 달려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12장에서 들은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약속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은 참여자가 아닙니다. 그는 행사에 참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가지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 항상 주님께 순종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 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영적 여정에서 때때로 실패할 것입니다. 다음 회기에는 17장의 할레와 관련된 언약 맺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다음 시간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인 16장부터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